



OK력비단이 최근 경북 경산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종별러비선수권 동호인부 결승전에서 충북OB와 경기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웃차” 광주 OK력비단, 전국종별선수권 우승

‘동호인부’ 충북OB 35-0 완파...전 국가대표 한구민 최우수선수상

광주 연고팀 OK금융그룹 웃차 력비단(OK력비단)이 제75회 전국종별러비선수권 동호인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OK력비단은 최근 경북 경산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충북OB를 35-0으로 완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구민(26·Backs)은 총 39점을 기록하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OK력비단은 지난해 3월 총 23명(선수 19, 지도

자 3)의 선수단으로 창단한 신생 실업팀이다. 한구민, 김상진, 홍석호 등 다수의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러비 1호 귀화선수로 활약한 안드레 진을 전략전술 코치로 발탁, 기량을 쌓고 있다. OK력비단은 지난해 창단 4개월 만에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종별러비선수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강팀의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광주시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연고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광주 연고력비단이 활동함에 따라 러비 저변확대와 선수 연계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에는 무진중학교와 전남고등학교 러비팀이 있다. 이상동 광주체육회장은 “OK력비단이 지난해 창단 후 두 번째 우승이자 광주 연고팀으로서 첫 승을 거둬 의미가 크다”면서 “광주연고 러비팀이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 광주 소속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여자 배드민턴 ‘금빛 스매싱’

노고단배 전국대회, 유서연 2관왕...혼합복식 동메달

조선대학교 여자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금빛 스매싱을 선보였다. 조선대 유서연(4년), 안혜원, 김혜선(이상 3년)은 지난 29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노고단배 전국대학실업배드민턴 연맹전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유서연은 여자대학부 단식 결승에서 조예람(한국국제대)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서연은 안혜원과 조를 이룬 복식 결승에서는 군산대(김운주, 이재은)를 2-0으로 완파, 금메달을 추가했다. 유서연은 단·복식 우승으로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김혜선, 김차현(김천대) 조는 대학부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장인호(세경대), 김지원(중앙대) 조에게 0-2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조선대 여자 배드민턴 선수단 김동현(왼쪽부터) 감독, 안혜원·유서연·김혜선. <광주시체육회 제공>

조선대 여자 배드민턴 선수단은 지난 4월에 열린 ‘2022 연맹회장기 전국대학실업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도 선전했다. 단식에 출전한 유서연과 안혜원은 나란히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FC, 성범죄 선수 계약 해지

광주FC 선수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계약 해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성범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는 선수의 자진 신고를 받았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광주는 표준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올 시즌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등 미래가 기대됐던 이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표준계약서 14조 ‘품위유지 등’ 조항에는 “계약기간 폭행·상해·성폭력·성희롱·사기·불법도박·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법령을 어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는 관련 사실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체고 김가현, 청소년태권도 ‘태극마크’

-55kg급 압도적 기량 펼쳐

광주체육고등학교 김가현(2년)이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30일 광주체육고에 따르면 김가현은 최근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된 ‘Sofia 2022 세계 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1회 아시아 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이 대회는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이 주최했다. 이번 대회 체급별 1위는 세계대회에, 2위 선수는 아시아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이었다. 김가현은 -55kg급 결승전에서 채운희(대전체육고)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승부를 마무리했다.

1회전에서 얼굴 들어차기 선취점 등으로 7-1

승, 2회전도 상대 돌려차기와 들어차기 얼굴 특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15-3으로 완승, 태극마크를 따냈다. 김가현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경기마다 큰 점수를 벌리며 1·2회전 경기에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3회전 경기를 한차례도 허용하지 않은 압도적인 승리였다. 김가현은 이번 대회에서 선전함으로써 2021년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결승전에서 좌절했던 아픔을 씻어냈다. 광주체육고등학교 김제안 교장은 “코로나로 훈련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좋은 성과를 일궈낸만큼 오는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농구 ‘연봉 킹’은 누구?

‘8억’ SK 김선형 1위...허용·전성현 7억5000만원

서울 SK의 창단 첫 통합우승 주역인 김선형(34·사진)이 2022-2023시즌 프로농구 보수 총액 1위 선수를 이름을 올렸다. KBL은 지난 30일 2022-2023시즌 프로농구 국내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선형이 8억원(연봉 5억6000만원, 인센티브 2억4000만원)으로 보수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2021-2022시즌 SK의 정규리그 및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끌고 나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선형은 계약 기간 3년에 걸쳐 보수 총액 8억원의 조건으로 SK와 사인했다. 김선형의 지난 시즌 보수는 5억2000만원이었다. 전주 KCC 유니폼을 입은 이승현과 허용, 데이전 전성현이 보수총액 7억5000만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인양 KGC인삼공사에서 총 보수 2억8000만원을 받았던 전성현의 경우 새 시즌 연봉은 6억원이지만 인센티브가 1억5000만원



이어서 총액은 김선형에게 밀렸다. 2022-2023시즌 보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선수는 200%(4000만원 → 1억2000만원)나오름금액으로 창원 LG와 FA 계약을 한 한상혁이다. 2위는 수원 kt와 169%(6700만원 → 1억8000만원) 인상된 금액에 FA 계약한 이현석이다. 지난 시즌부터 도입된 소프트캡과 관련하여 SK와 KCC가 샐러리캡(26억원)을 초과했다. SK와 KCC는 샐러리캡을 초과한 금액의 30%인 7798만7400원, 6750만원을 각각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납부한다. 한편 울산 현대모비스 김영현은 소속 구단과 합의에 실패해 보수 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U-16 여자 농구, 2위 ‘유종의 미’

뉴질랜드 78-59로 꺾어...수피아여고 고현지 7스틸 활약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 16세 이하(U-16) 여자농구 대표팀이 뉴질랜드에 설욕하며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상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0일 요르단 암만의 프린스함자인터내셔널스포츠클에서 열린 2022 FIBA U-16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결정전에서 뉴질랜드를 78-59로 꺾었다. 전날 준결승전에서 호주에 81-98로 진 한국은 일본에 패해 3위 결정전에 내려온 뉴질랜드를 꺾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이 속한 A조 5개 나라와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등 B조 8개국을 합쳐 13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은 이 대회 상위 4개국에 주는 FIBA U-17 월드컵 출전권을 이미 확보했다. U-17 월드컵은 내달 9~17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치러진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아시아선수권 대회 첫날인 지난 24일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패한 아픔을 설욕했다. 당시 한국은 상대에 무려 30개가 더 많은 70개 리바운드를 내주는 등 높이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은 이날도 상대에 리바운드를 더 내주긴 했지만, 격차를 7개(43-50)까지 좁혔다.

아울러 24회나 상대 공을 훔치며 실책을 31개나 유발한 것도 승인이었다. 1쿼터를 22-20, 근소하게 앞서며 마친 한국은 2쿼터부터 점수 차를 벌려 나갔다. 김솔(화봉고)이 2쿼터에만 3점 세 방을 성공시킨 가운데 상대 득점도 4점으로 묶여낸 한국은 전반을 37-24로 리드한 채 마쳤다. 김솔은 3쿼터에도 3점 4개를 넣으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3쿼터 제공권 싸움에 가담한 포인트가드인 성수연(춘천여고)이 리바운드 5개를 걷어내며 골밑에 힘을 보탠 한국은 57-38, 19점 앞선 채로 4쿼터를 시작했다. 이후 점수 차가 줄곤 15점 내외로 유지되던 가운데, 경기 종료 2분 전 정현(송의여고)이 달아나는 3점을 성공하며 점수를 69-51로 만들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코트 전 지역에서 압박에 나선 한국은 결국 종료 4초 전 또 한 번 상대 공을 훔쳐내며 경기를 매조지었다. 김솔이 26점을 올렸고, 성수연도 9어시스트, 14리바운드를 올리며 활약을 보였다. 고현지(수피아여고)도 7스틸을 기록하며 팀의 수비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문화산책. GAC ART WEEK. 광주국악상설공연.